

# 구학관 교수의 영어공부 길잡이

## 1. 영어의 '숲'을 보아야

[Go to Top](#)

어느 분야를 공부하든지 현명하게 공부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공부하려고 하는 분야의 '숲'을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 중요한 '나무'들을 하나씩 체계적으로 공부해 나간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먼저 지도를 보고 목적지와 경로를 파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상식대로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영어의 숲을 올바르게 보여주는 책이 드물기 때문이다.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학습자가 가장 먼저 보아야 하는 '숲'은 영문법과 영미문화의 상관관계이다. 언어에서 문법과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해야만 비로소 현명한 목표설정과 균형 있는 영어공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영어 = 영문법 + 영미문화

영어라는 언어를 하나의 숲으로 비유하고 영어의 개별 표현들-즉, 단어, 구, 문장, 문단 등-을 숲을 이루는 크고 작은 나무들에 비유하자면, 문법과 문화는 각각 나무의 줄기(stems)와 잎사귀(leaves)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문법은 모든 표현들의 틀(frame)을 이루고 문화는 그 틀에 들어가는 내용(content)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나무가 나무답기 위해서는 줄기도 잘 갖추어져야 하고 잎사귀도 푸르러야 하듯이, 영어 표현이 영어 표현답기 위해서는 문법의 틀에 맞아야 하고 문화도 올바르게 담고 있어야 한다. 줄기와 잎사귀가 상호 보완적으로 나무를 이루듯이, 문법과 문화도 상호 보완적으로 언어를 이룬다.

### 영어공부 = 영문법 공부 + 영미문화 공부

영어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영문법과 영미문화를 모두 알아야 한다. 영어를 배우는 과정을 어린아기의 성장과정에 비유하자면, 문법규칙들을 배우는 과정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문화를 배우는 과정은 살이 붙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어능력이 건실하게 향상되기 위해서는 영문법이 탄탄하게 축적되어야 하고 영미문화에 대한 지식도 비례해서 늘어야 한다. 그리고, 건강한 아이에게 있어서 뼈의 발달과 살이 붙는 과정은 늘 '동시에' 진행되듯이, 건강한 영어공부에 있어서 문법과 문화의 습득은 늘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 잘못된 영어공부

영문법과 영미문화를 '균형있게' 갖추고 있지 못한 사람은 영어로 균형있게 기능할 수 없다. 뼈와 살이 고르게 발달되어야지 어린이가 사람으로서 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먼저, 영문법은 어느정도 갖추어져 있지만 영미문화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은 미국인에게 관심있는 말을 잘 못할 수밖에 없다. 문법적인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능력(= 뼈대)'은 있지만 미국사람들이 늘상 이야기하는 '내용(= 살)'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영미문화에 대한 지식은 꽤 있지만 영문법이 갖추어지지 못한 사람은 말은 이력저력 주위삼키지만 실은 엉터리 영어가 대부분이다. 말할 내용(= 살)은 많아도 문법적이고 정확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능력(= 능력)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즉, 문법만 있는 사람은 아예 말을 못해서 문제이고, 문화만 있는 사람은 엉터리로 말을 해서 문제

인 것이다.

### **올바른 영어공부**

따라서, 영어를 효율적으로 배우려는 사람은 문법과 문화를 고르게 섭취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즉, 문법적인 문장과 정확한 문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문법규칙을 매일 조금씩 공부해야 하는 동시에, 영미문화의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표현들을 매일 조금씩 익혀야 한다. 자신의 수준에 맞는 실용적인 '문법'책을 통하여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법적인 문장을 만들어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동시에, 자신에게 필요한 실용적인 '문화'책('상황별 회화책들'이 여기에 포함됨)을 통하여 영미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영어 표현들을 익혀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문법과 문화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필요한' 문법과 문화는 무엇인가?

#### **1.1. 영문법을 알아야**

영문법을 안다는 것은 영어의 규칙들이 최소한 다음 3분야의 규칙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과, 따라서 영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 하겠다. 어떠한 문장이든지 듣고(listen), 말하고(speak), 읽고(read), 쓰기(write) 위해서는 이 세 분야의 규칙들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 **영문법의 3대 분야 규칙들**

① 구문규칙 : 문장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규칙들

② 음운규칙 : 발음을 하는 데 사용되는 규칙들

③ 어휘규칙 : 단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규칙들

**첫째,**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을 만드는 '구문규칙'들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사의 의미론적 분류에 따른 다양한 '단순구문 규칙'들을 공부하고, 단순구문을 복잡한 구문으로 만들어 주는 다양한 '변형구문 규칙'들도 공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양한 전치구문, 후치구문, 도치구문, 생략구문, 종속구문, 반복구문 등등의 구조와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어떤 문장을 보더라도 자신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구문들 가운데 하나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각 구문의 정확한 의미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단어와 구와 문장의 발음을 관장하는 '음운규칙'들을 알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listening/speaking 상황을 통하여 발음규칙들을 공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영어는 우리말처럼 syllable time language-즉, 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음절수에 달려 있는 언어-가 아니라 stress time language-즉, 말하는 시간이 '악센트를 받는 음절' 수에 달려 있는 언어-라는 것을 기억하고 speaking 연습을 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문장을 듣더라도 자신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음운규칙들을 사용하여 개별단어로 해독(decode)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데 사용되는 '어휘규칙'들을 알아야 한다. 영어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깨닫듯이 우리는 늘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쓰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생략어법(Clipping), 혼성어법(Blending), 전환어법(Conversion), 접사어법(Affixation), 복합어법(Compounding), 부분대치어법(Misanalysis), 탈고유명사어법(Antonomasia), 역성어법(Back Formation), 통사구 축약어법(Syntactic Word), 두문자어법(Acronomy) 등의 단

어쨌든 규칙들을 알아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단어라도 자신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어휘규칙들을 사용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고 추측할 수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 어휘규칙들을 능동적으로 사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바를 생생하게 만들어 쓸 수 있어야 한다.

## 1.2. 영미문화를 알아야

영미문화를 안다는 것은 영미문화에 대한 '원근감각'(cultural perspective)과, 각 문화에 대한 '실용적인 지식'(cultural knowledge)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 바탕이 없을 경우, 문법적인 문장은 구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미인들에게 흥미있는 이야기나 의미있는 이야기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먼저**, 영미문화에 대한 '원근감각'(cultural perspective)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영미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영역이 '공통문화'에 속하고, 어떤 영역이 '개인문화'에 속하며, 어떤 영역이 이 두 문화의 중간('집단문화')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한 현실감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다수 영미인들이 일상적인 삶의 일부로서 이야기하는 문화와 일부 영미인들만이 이야기되는 문화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한다. 물론, 영미인들과 우리들의 공통문화는 겹치는 부분도 많다. 예컨대, 식생활이나 가족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과 같은 영역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공통문화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만 공통문화에 속하는 영역들도 많은데, 그 예로서 자동차 문화와 파티 문화를 들 수 있다. 미국에서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파티를 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활동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대화의 화제로 늘 등장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공통문화에 속하지만 미국에서는 개인문화-또는 '(특수)집단문화'-에 속하는 영역들도 있다. 그 예로서, 대학입시 문화와 아파트 문화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의 대학입시와 내집 마련을 위하여 누구나 고민하고 일상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소수 사람들에게만 화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둘째**, 일단 영미문화에 대한 원근감을 갖추고 나면 중요한 문화 하나 하나에 대하여 '실용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즉, 각 문화상황에서 영미인들의 관심사가 무엇이고 그 관심사가 어떠한 표현들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든 영미인들의 공통문화인 식사문화에 대한 실용적인 지식을 갖춘다는 것은 식탁에 등장하는 도구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주로 먹는 음식, 식탁에서의 대화, 기본적인 요리법 등에 대한 표현들을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영미인들의 공통문화에 대한 지식도 개인차가 클 수 있다. 점심으로 햄버거를 주로 먹는 중산층의 식사문화와 고급 불란서요리를 즐기는 상류층의 식사문화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미문화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때에는 중산층 Anglo-Saxon 미국인들의 문화부터 습득하여야 한다.

## 2. 단계별로 필요한 공부를 알아야

[Go to Top](#)

어느 분야를 공부하든지 현명하게 공부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단계적으로 나아간다. 목표가 분명하지 못할 경우 엉뚱한 책을 갖고 씨름할 수밖에 없고, 단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을 경우 우회도로에서 헤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단계를 크게 3가지로 나누어 각 단계별 공부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영어공부의 1단계: 초급영어 ("기능적 의사소통")

목표 : 외국인과의 기초회화

훈련영역 : ① '초급' 구동사

② '전형적인' 상황별 회화표현

영어공부의 1차적인 목표는 외국인과의 '기능적인(functional)' 대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학습자는 다음 2가지를 집중적으로 훈련하여야 한다.

**첫째,** '기초회화' 능력의 뼈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쉬운 구동사(phrasal verb)를 활용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문장을 만드는 데에는 다양한 품사의 단어들 사용되지만, 문장의 '틀(frame)'은 동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쉬운 문장들에는 구동사가 주로 쓰이기 때문이다. 사실,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은 come, go, take와 같은 '핵심동사' 30여 개와 20여 개의 전치사와 부사만 가지고도 하고 싶은 말을 어느 정도-즉, 기능적으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어린이들도 encounter, suffer, retract와 같은 '배움말' 표현을 사용하기 전 단계에서는 come across, go through, take back과 같은 쉬운 표현들을 사용한다.

**둘째,** '기초회화' 능력의 살을 붙이기 위하여는 제한된 숫자의 '전형적인' 상황별 회화표현들을 공부해야 한다. 즉, 초급 회화책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15~20개의 대화 상황에서 전형적으로 쓰이는 표현들을 연습해야 하는 것이다. 구동사 활용능력이 갖추어져 있으면 자신의 생각은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지만, '상황별' 표현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영미인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상투적으로 사용되는 표현들은 구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많은 문법 규칙이나 다양한 어휘는 없어도 전형적인 상황별 표현만 잘 알고 있으면 큰 불편함 없이 '기능적인' 의사소통은 할 수 있다.

물론, 구동사를 활용하여 기본문장을 만들고 상황별 표현을 익히는 연습을 할 때에는 테이프에 녹음된 native speaker의 발음을 반복해서 (필요하면 수십 번) 따라해 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혼자 연습하는' 과정 없이는 외국인과의 실제 회화 상황에서 들리지도 않고 말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아무리 많은 시간을 보내도 별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초급영어 단계에서 영문법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초보적인 문장들을 듣고 말하는 데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영문법 지식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능적인 회화'를 목표로 공부하거나 영어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사람은 복잡한 구문규칙이나 어휘규칙을 공부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말고, 쉬운 구동사 표현들과 자신의 수준에 맞는 상황별 회화표현들을 '듣고 따라해' 보는 데 치중해야 한다. 이것은 물론 모든 자연언어 습득의 순서-즉, 듣기/말하기/읽기/쓰기-와도 부합하는 것이다.

## 영어공부의 2단계: 중급영어 ("의미있는 의사소통")

목표 : 외국인과의 중급회화 및 중급독해

훈련영역 : ① '중급' 구동사

② '다양한' 상황별 회화표현

③ 중급 영문법

④ 일간신문의 어휘와 표현

⑤ 발음 규칙

영어공부의 2단계 목표는 외국인과의 '틀에 박힌' 대화 수준을 넘어 비교적 '의미있는(meaningful)' 대화를 할 수 있고 일간신문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학습자는 무엇보다도 다음 다섯 가지를 집중적으로 훈련하여야 한다.

**첫째,** '중급회화' 능력의 뼈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중급' 수준의 구동사(phrasal verb)를 활

용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즉, come, go, take와 같은 '핵심동사'의 수준을 넘어 carry, pick, try와 같은 '기본동사' 200여 개에 적절한 전치사와 부사를 붙여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사실, 핵심동사와 기본동사 250여 개에 근거한 구동사 표현들의 기초만 잘 되어 있으면 하고 싶은 말을 꽤 정확하고 쉬운 영어로 표현할 수 있다.

**둘째**, '중급회화' 능력의 살을 붙이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상황별 회화표현들을 익혀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상황은 객관적인 정의가 불가능하지만, 중급(또는 고급) 회화책에 등장하는 그러한 회화상황들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초급회화의 '상투적인' 표현들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많은 대화상황을 접해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다양한 상황별 표현들을 공부할 때에는 일차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상황부터 우선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중급독해' 능력의 뼈대를 붙이기 위해서는 영문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구성하는 어휘들의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장의 틀(= 구문)의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주위에는 영어를 '우리말로 매끄럽게' 번역하고 '일견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꽤 있지만,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넷째**, '중급독해' 능력의 살을 붙이기 위해서는—그리고 동시에 '중급회화' 능력에 무게를 실어 주기 위해서는—다양한 '일상적인' 글을 통하여 중급 수준의 어휘와 표현들을 배워야 한다. 이 목적으로 가장 무난한 매체는 New York Times와 같은 일간신문이나 미국 대학에서 발간되는 교내 신문이다. 물론, 전자의 경우 일부 칼럼은 난해하고 '보도성' 기사들은 신문에만 쓰이는 어휘와 표현만을 사용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대부분의 기사들은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어휘와 표현들을 사용하여 쓰여지고, 그 내용 또한 '보통사람들'의 관심사를 주로 다루기 때문이다.

**다섯째**, 중급 수준의 회화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발음규칙도 별도로 체계적으로 공부하여야 한다. 우선 상대방이 정상적인 속도로 하는 말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중요한 발음규칙들은 모두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규칙들은 '회화'용 책을 통해서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어느 정도 유창하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도 발음규칙을 적용하는 연습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연습도 미국인과의 실제 회화를 통하여 배우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용적인 이유로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제 2단계를 최종 목표로 삼고 공부하면 된다. 외국인과의 '의미있는' 대화를 할 수 있고, 미국 사람이면 누구나 읽는 일간신문을 읽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 **영어공부의 3단계: 고급영어 ("자유로운 의사소통")**

목표 : 외국인과의 고급회화 및 고급독해

훈련영역 : ① '고급' 문법

② 전문 잡지/매체

영어공부의 최종 목표는 외국인과의 '의미있는' 대화 수준을 넘어 '자유로운'(uninhibited) 대화를 할 수 있고, 수준있는 글들을 큰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는 것일 것이다. 물론 모든 non-native speaker들에게 이 단계는 하나의 목표로 존재할 뿐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목표에 얼마나 근접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지만, 이 목표를 설정한 학습자들을 위하여 공부해야 할 것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급독해' 능력의 뼈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영문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난해한 문장은 종종 함축성이 높은 문장을 의미하고 함축성이 높은 문장은 복잡정교한 구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고급독해를 목표로 하는 사람이 구문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구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것은 동사구문이다. 즉, 동사가 요구하는 문장의 틀- 주어, 목적어, 보어등등-에 어떤 구문이 쓰이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문장의 틀에 들어갈 다양한 명사구, 전치사구, 형용사/부사구의 구문적 의미와 기본문장을 다양하게 변형시키는 규칙들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공부하여야 한다. ([5.4.1.1] 참조)

**둘째,** '고급독해' 능력의 살을 붙이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글을 통하여 고급영어에 쓰이는 어휘와 표현들을 익혀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서는 Time이나 Newsweek와 같은 시사잡지를 권할 만 하다. 이들 잡지의 기사는 종종 문장력이 좋은 전문 기자들에 의하여 쓰여지고 '교육받은'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루는 내용도 대부분 '세계인'들의 관심사이고 누구나 쉽게 구해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고급회화' 능력의 뼈대와 살을 붙이기 위하여 '고급독해'와 별도로 특별히 공부해야 할 것은 많지 않다. 영어가 고급 수준에 근접한 사람들은 독해에 사용되는 많은 표현들과 문법규칙들을 그대로 회화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영어로 쓰여진 글들을 많이 읽고, TV나 radio를 통하여 많이 듣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외국인과의 대화할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 3. 정도를 걸어야

Go to Top

영어를 공부하기 전에 영어의 숲을 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실제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도를 걷는 것이라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흥미위주 공부의 유혹을 뿌리치고 자신이 해야 할 몫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3.1. 흥미위주 공부의 유혹을 뿌리쳐야

필자가 교육방송 [TOEFL 강좌]를 6년동안 진행하면서 독자들로부터 끊임없이 받은 요청 가운데 하나는 교재를 좀 더 다양하고 흥미롭게 구성하여 달라라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교재 속에 팟송, 스크린 영어, 속담, Time지 기사 등 다양한 소재의 글을 포함시키고 보다 시각적으로 편집해 달라라는 것이다. 영어 '책'보다는 영어 '잡지'가 더 많이 읽히고, 원칙을 다루는 책들보다는 잡문(雜文)이나 만화 형식의 책들이 더 많이 읽히는 요즈음의 세대와 일맥상통하는 요청이겠다.

물론, 영어공부의 소재를 다양화하는 것은 일부 학습자들에게 좋은 동기(motivation)를 부여할 수도 있다. 문법책이나 회화책을 통한 전통적인 영어공부는 싫어하지만 팟송을 통한 영어공부는 좋아한다면 팟송 영어를 통해서라도 영어공부에 취미를 붙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신적 부담을 주지 않고 술술 읽히거나 시각적으로 재미있는 책들도 전반적인 영어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의 두뇌도 가끔은 쉬게 하는 것이 학습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팟송 영어나 스크린 영어와 같은 소재는 영어의 '살'을 붙이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뼈대'를 세우는 데에는 별 도움이 안된다. 노래의 가사와 영화의 대사에 사용되는 '구문'의 종류는 대단히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구문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속담 영어도 영어의 '뼈대'를 세우는 데 도움이 안되기는 마찬가지다. 속담은 종종 격언적인 성격을 띠고 따라서 재미는 있지만, 속담에 예시된 구문의 종류는 극도로 한정되어 있기 때

문에 속담을 통하여 영어의 뼈대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나마 팝송 영어와 스크린 영어가 영어의 '살'을 붙이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고급영어 단계에 있어야 한다. 즉, 중급영어를 구사하는 데 필요한 중급 영문법 규칙들과 영미문화 표현은 이미 다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결국, 초급영어나 중급영어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습자들에게는 별 도움이 안된다는 말이다.

모든 공부에서 그러하듯이, 영어공부에서도 가장 빠른 길은 정도를 걷는 것이고 정도를 걷는 것은 원칙에 충실하는 것이다. 특히, 실용영어의 기초를 다지는 단계에 있는 사람은 흥미의 유혹을 뿌리치고 '초급' 구동사를 활용하고 '전형적인' 상황별 회화표현을 익히는 데 치중하여야 한다. 중급영어 단계에 있는 사람도 한눈 팔지 말고 중급단계에서 필요한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는 데 총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물론, 기분전환이나 심심풀이로 팝송 영어나 스크린 영어, 속담 영어와 같은 것들을 공부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아직 중급영어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 팝송 영어나 스크린 영어, 속담/격언 책에 매달리는 것은 시간낭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3.2. 자신의 몫을 충실히 해야

필자는 매학기 영문법 수업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있다. 교수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리고 영문법 책이 아무리 좋아도) 학생들의 '실질적인' 실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몫은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학생 자신의 몫이라는 것이다. 즉, 학생이 매일 1시간씩 듣는 수업이 의미있기 위해서는 집에서 3~4시간씩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일상적인 공부는 학습자가 과제를 갖고 씨름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진정한 깨달음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수업을 통하여 해결받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필자는 이것을 굳게 믿기 때문에 1시간짜리 영문법 수업은 늘 5~7분짜리 퀴즈로 시작하고 20~30분 동안의 질의응답으로 이어진다.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몫 80%를 집에서 하고 수업에 임하기 때문에 수업시간을 통하여 배우는 나머지 20%는 대단히 가치 있고,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필자가 말하는 '80-20' 원칙은 영어의 중요한 규칙들을 배우는 영문법 공부뿐만 아니라 영미문화의 일상적 표현들을 배우는 영어회화 공부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자신의 몫 80%'를 하는 사람에게는 미국인과의 회화수업이 목표 100%를 완성하는 귀한 기회가 되지만, 자신의 몫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저 목표의 20%를 채우는 비싼 기회밖에는 되지 않는다.

'80-20' 원칙은 어학연수에도 적용된다. 한국에서 자신이 해야 하는 영어공부의 몫 80%를 다한 사람이 영어권 국가에 가서 6개월이나 1년을 지낼 때에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기초가 안되어 있는 사람이 어학연수를 가는 것은 실제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럴듯한 '어학연수'의 껍데기를 벗겨 보면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학원공부를 비싼 경비를 들여 외국에 가서 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사실 영어-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필요로 하는 초급영어-의 기초를 잘 닦기 위해서는 수백만 원을 들여 어학연수를 떠날 필요도 없고, 수십만 원을 내고 회화학원에 다녀야 할 필요도 없으며, 비싼 어학 테이프를 구입하여 비싼 기계에 돌려야 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주된 이유는 환경 때문도 아니고, 강사 때문도 아니며, 교재나 도구 때문도 아니다. 모두가 스스로가 해야 할 몫을 안했기 때문인 것이다.

영어공부의 정도를 걷고자 하는 사람은 외적(外的)인 도움에 의존하기 전에 자신의 몫을 충실히 공부해야 한다. 그래서 학교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회화 강사를 만나기 전에, 그리고 어학연수를 떠나기 전에, 자신이 해야 할 몫 80%를 다 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초급회화를 목표로 공부하는 사람은 기초 회화책에 나오는 대부분의 표현들을 외워서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핵심적인 구동사를 활용하여 문장을 만들 수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이러한 기초가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생각될 때 비로소 외국인과 만나 대화하는 연습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80-20' 방법이 처음에는 너무나 괴롭고, 비효율적이고, 느린 것처럼 느껴지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길이기 때문이다.